03□□□_01□□□ 12. 7. 19. □□ 7:18 Page 63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3호 2012.06. pp.63~88

윤석중 동시에 드러난 낙천적 환상성 연구

—작품의 내적형식을 중심으로

A Study on Optimistic Fantasy of Yoon, SeokJung's Children's Poem

신정아(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2. 동화적 환상
1) 상상의 세계
2) 동심의 세계
3. 의인화(=물활론)적 환상
4. 공간적 환상
1) 환상적 공간1—하늘
2) 환상적 공간2—달을 따다
3) 환상적 공간3—지구를 한 바퀴
5. 변형인식적 환상
6. 결론

1. 서론

일상의 현실에서 현실 그 이상의 것을 구축하게 하는 힘을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 환상의 세계에서는 일상보다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으며 작가의 상상력으로서 '꿈의 현실'인 또 하나의 생명을 빚을 수가 있다.[1)]

이제까지 아동문학에서의 환상은 동시보다는 동화에 치우쳐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본론에서도 밝히겠지만, 신현득은 오히려 동화보다 동시에 환상적 요소가 더 많이 작용한다고 보았다. 그렇다면 동시에서도 환상성이 드러난 작품이 면밀히 검토되고,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1) 곽홍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30쪽.

03□□□_01□□□ 12. 7. 19. □□ 7:18 Page 64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윤석중 작품을 토대로 동시의 환상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가 본고에서 윤석중의 환상성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역사 100년 동시'의 환상성 연구에서 90년 평생을, 한 세기 가까이를 동시에 힘써온 윤석중 작가를 빼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제껏 많이 논의되어 온 윤석중 동시의 낙천성을 시적환상과 결부시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편으로 윤석중 문학에 드러난 낙천성을 '동심천사주의'라고 비판한 연구들도 적지 않은데, 환상과 낙천성과의 관계를 증명한 실험[2)]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1차적으로 증명한다.

어린이는 환상을 좋아하고, 환상은 보통 낙천성과 이어진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서 보고, 듣고, 만지고 움직이며 깨어있는 시간 내내 혼란스러운 세상을 분류하고 체계화하고 정리하면서 혼란을 해소하려고 노력한다. 좌절 없는 자기만족과 자랑스러움과 낙천성, 언제나 선한 것이 승리하고 기쁨이 넘치는 아이들의 환상세계는, '유치'한 환상에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노력 속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는 현실을 자기 나름대로 이겨나가고 있고, 그 이겨나가는 방법이 어른과는 다르다. 아이들은 끝없이 낙천적인 자기본능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본성에서 터져 나오는 낙천성과 만나기 위해서는 낙천적인 척하는 것만으로 어림도 없어서, 어떠한 굴곡을 만나도 뚫고 갈만한 '환상적' 낙천성은 오히려 어린이의 천진함에 더 가깝다.[3)] 이렇듯 천진한 낙천성이 시적환상을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말했듯 윤석중 동시에 드

2) 한 과학자가 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뒤, 수조 속에 빠뜨려 누가 더 오래 헤엄을 치는가, 하는 실험을 했다. 단, 한 수조에는 작은 섬을 만들어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섬이 있는 수조 속에 있는 쥐들이 더 오래 헤엄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수조 속에 아무 것도 없는 똑같은 조건에서 시합했는데, 역시 첫 번째 승리한 쥐들이 또다시 승리했다. 섬이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떠올렸기 때문에 다른 그룹의 쥐보다 더 열심히 헤엄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내용은 낙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줄곧 인용된 사례이다.

3) 최선옥, 「시적상상과 환상」, http://blog.naver.com/poempoem

03□□□_01□□□ 12. 7. 19. □□ 7:18 Page 65

러난 환상도 '낙천성'을 그 기초에 두고 있다.[4] 환상자체는 비논리적인 어떤 것이지만, 그것이 작품 속에서 환상적 언어라는 타이틀로 활용되어 현실세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묘하고 돌출적인 신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그렇게 본다면 환상은, 비논리적이지만 어떤 설명에 의해 해소되는 논리적인 신비성을 지닌다. 이것이 '시적환상'[5]으로 전환되어 빛나는 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낙천적 환상성은 미래를 열어가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이 된다. 이런 논지에서 보면, 윤석중의 낙천성을 동심천사주의라 단정지은 기존평가의 부적절함이 극명히 드러난다.

소논문에 윤석중 전집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할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더 좋은 작품을 가려내기 위해 윤석중 전집을 대상으로 작품을 가려냈음을 미리 밝히는 바다. 또한, 독자들에게 보다 친숙한 작품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작품은 될 수 있는 한 전문을 실으려 한다. 작품을 부분적으로 떼어서 옮겨다 놓으면 동시에서는 특히,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윤석중 동시의 환상성 중에서도 내적형식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시에서의 내적형식은 크게 상징, 이미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미지 형상화'가 환상적 유형에 어떤 방식으로 도출되었는지 분석한다. 그 환상적 유형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낙천적 동심을 바탕으로 한 동화적 환상이 그것이고, 두 번째는 아동문학 작품에서 종종 나타나는 의인화적 환상, 다음으로 공간적 환상, 마지막이 변형인식적 환상이다.

---

4) 윤석중은『어린이와 한평생』에서 "어른들이 지어낸 동요에도 우리들은 불만이 컸다. 맨 한숨투성이, 눈물투성이가 아닌가. 슬프면 자기들이나 슬펐지, 왜 우리들까지 울려놓는단 말인가. 우는 우리를 달래는 못주나마, 무슨 심정으로 같이 따라 울게 만든단 말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이 동시에서 미래적, 낙천적 환상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다.

5)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접할 때, 비록 그것이 현재 내가 속해있지 않거나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본 듯한 환상을 느끼는데, 시인에게 잡힌 이러한 일상적 대상이나 장면이, 시인특유의 안목이나 정서에 의해 인상 깊게 각인된 감각의 기억을 표현한 이미지가 '시적환상'이다.

03□□□_01□□□ 12. 7. 19. □□ 7:18 Page 66

2. 동화적 환상

환상은 상상에서 시작된다. 오세영은 "'환상'과 '상상'이라는 용어의 관계에 대한 입장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코올리지 및 리차드와 같은 사람들은 '환상'을 '상상'보다는 약간 저급한 정신작용이라는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루이스나 엘리어트, 리이드 같은 사람들은 환상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상상력과 동일한데 힘의 강도에 의하여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6] 환상성을 가진 아동문학은 우리 주변의 현실과 깊은 상관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차원의 것이어야[7]함으로, 적어도 아동문학에서는 후자의 환상적 이미지가 적합하다.

윤석중 작품에서는 동심을 바탕으로 한 '동화적 환상'이 자주 드러난다. 김종헌은 '동심'의 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다. 당대의 현실을 아동의 시각에서 표현하고 아동이 주체적인 입장에서 대응하도록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리얼하게 그려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밝은 미래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있는 그대로의 동심'과, 어린이들의 현실 속에 나타날 수 있는 세계를 그럴 듯하게 모방하는 개연성을 중시해서 어린이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나 어른들의 관념으로는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시에서는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있어야 할 동심', '당위적 동심'으로 나누고 있는데 윤석중의 동심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8]

아동문학의 세계는 정신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는 세계여야 한다. 어린이에게 참혹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확고한 문학의식을 소유한 윤석중은, 더군다나 동요에 있어서는 무겁거나 벅차지 않은

6) 오세영, 『문학연구 방법론』, 시와 시학사, 1993, 344쪽.
7) 유경환, 「기법상의 소재로서」, 『아동문학사상1』, 보진제, 1970, 56쪽.
8) 김종헌, 「해방기 윤석중 동시 연구」, 우리말글, 2003.

03□□□_01□□□ 12. 7. 19. □□ 7:18 Page 67

가볍고, 우습고, 재미나는 것이 많아야 한다[9]고 말한다. 그는 당대의 지배이념에 편승하지 않고 초지일관 미래를 향해 동심을 지향하게 된다. 이러한 윤석중의 '당위적 동심을 추구'해야 한다는 자아의식은 작품에서 자연과 사물과 인간을 동일한 위치에 놓는다.[10]

1) 상상의 세계

아동심리학에서는 어린이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로 상상 활동을 들고 있으며, '상상의 세계는 바로 아동의 세계이며 아동의 정서적 특징을 이루는 것이기에 가능하다.'라는 삐아제(J, Piaget)의 말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상상의 사전적 의미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하나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 속으로 그려본다는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자극에 의하지 않고 기억된 새로운 심상을 떠올리는 일이다. 윤석중의 다음 작품에서는 이러한 상상의 개념이 잘 드러나 있다.

> 다쳐서 다쳐서 피가 나면/누나가 업어도 아픕니다./엄마가 업어도 아픕니다./울어도 울어도 아픕니다.//사람은 왜/피를 넣고 만들었나요./사탕을 넣고 만들지.//
>
> —「사람」 전문

어린이들의 동심(童心)적 상상은 보통 '~한다면'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위 작품에서도 화자가 '사람을 피가 아닌 사탕을 넣고 만들었다면?'이라는 상상을 한다. 보통 아이들은 실제 아프지 않아도 피가 나면 운다. 다쳐도 피가 나지 않으면 울지 않는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사람」은 이러한 어린이들의 심리를 함축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묘사하였다. 피

9) 윤석중, 『동요 따라 동시 따라』, 창조사, 1971, 183쪽.
10) 노경수, 『윤석중 연구』, 청어람, 2009, 237쪽.

03□□□_01□□□ 12. 7. 19. □□ 7:18 Page 68

가 나면 누나가 업어도 아프고, 엄마가 업어도 아픈데 왜 굳이 피를 넣고 사람을 만들었는지 순수한 동심으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사탕을 넣고 만들었다면, 다쳐도 사탕이 콸콸 쏟아질 텐데 화자는 아쉬울 따름이다. 상상이 가지는 첫 번째 의미처럼 화자가 실제로 경험해보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아이들을 꿈이 있는 세계로 안내하기 충분하다.

> 해바라기가 시계처럼 친다면/땡땡땡, 시계처럼 친다면/꽃밭에서 꽃들이/일제히 자고 일제히 깨겠지.//나팔꽃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면/또또또, 나팔 소리가 난다면/꽃밭에서 꽃들이 일어나/덩실덩실 춤들을 추겠지.//
>
> —「해바라기와 나팔꽃」 전문

작품 속 화자는 동그랗고 커다란 해바라기가 시계라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한다. 해바라기에서 땡땡땡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나면, 꽃밭에 꽃들이 일제히 자고 일제히 깨어날 것이라는 상상은 순수한 동심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나팔꽃에서 나팔 소리가 난다면 꽃들이 춤을 추겠지, 하는 상상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상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환상을 자극한다. 환상의 사전적 의미인 즉, 현실적인 기초나 가능성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을 말한다. 해바라기에서 시계 종소리가 나고, 나팔꽃에서 나팔소리가 나는 것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다. 하지만 위 작품은 '～한다면'이라는 상상에서 출발해 어린이들을 환상의 세계로 안내한다. 이처럼 환상은 상상에서 한 단계 발전된 의미인 것이다.

2) 동심의 세계

"정말로 국경이 없는 것은 동심인 줄 압니다. 동심이란 무엇입니까? 인

03□□□_01□□□ 12. 7. 19. □□ 7:18 Page 69

간의 본심입니다. 인간의 양심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동물이나 목석하고도 자유자재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곧 동심입니다."[11]라는 윤석중의 말처럼 그의 많은 작품이 통일을 지향하거나 동심을 지향한다. '있는 세계'보다는 '있어야 할 세계', '있는 인간'보다 '있어야 할 인간'을 지향하는 것이다. 있는 세계는 어른들이 만든 세계이며 있어야 할 세계는 아이들이 만들어 갈 세계이기 때문이고, 사실성의 세계에 있는 인간이 어른들이라면 미래에 있어야 할 사회의 주인공은 어린이이기 때문이다.[12] 윤석중이 생각하는 있어야 할 세계와 있어야 할 인간이 그의 동시에서 낙천적 환상성으로 드러난 것이다. 다음 작품 「그림자」는 윤석중이 바라는 환상적인 세계를, 낙천적 상상력으로 그린 동시이다.

> 그림자 그림자/그림자는 젖지 않지./그림자로 옷 해 입고/비 오는 날 다녔으면.//그림자 그림자/그림자는 못 붙잡지./그림자로 옷 해 입고/술래잡기 했으면.//그림자 그림자/그림자는 흙 안 묻지./그림자로 옷 해 입고/데굴데굴 굴렀으면.//
>
> —「그림자」 전문

그림자는 아무리 비가 퍼부어도 도무지 젖는 법이 없다. 해가 안 뜬 날은 어디로 숨어버리지만, 비오는 밤거리를 걸을 때, 불빛에 비친 그림자를 보더라도 비에 젖는 일이 없다. 그러니 그림자로 옷을 해 입고 다니면 비오는 날 우산을 받지 않아도 몸이 젖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림자는 젖지만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혀지지를 않는다. 그러니 그림자로 옷을 해 입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옷에 흙이라도 묻혔다가는 엄마한테 야단을 맞으니까 새 옷을 갈아입었을 때는 잘 뛰어놀지

11) 윤석중, 『노래는 살아있다』, 웅진출판, 1988, 131쪽.
12) 노경수, 앞의 책, 101쪽, 237쪽.

03□□□_01□□□ 12. 7. 19. □□ 7:18 Page 70

도 못한다. 그런데 그림자는 흙 위를 막 굴러도 모래 하나 묻지를 않으니 얼마나 좋은가. 젖지도 않고, 붙잡히지도 않고, 흙도 안 묻고……. 그래서 무척 부러워 노래로 불러본 것이 이 「그림자」이다.[13] 윤석중은 "사람이 머리만 잘 쓰면, 그림자 같은 옷을 만들어 낼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비가 오는 날 뛰어다녀도 젖지 않고, 마음 놓고 술래잡기를 하고, 마음껏 흙에 뒹굴 수 있는 날이 실제 올는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는다.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윤석중의 맑은 동심으로 만들어낸 이와 같은 환상의 세계가 있기에, 아이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낙천적인 희망을 갖고 꿈을 꿀 수 있는 것이다. 한 편의 작품을 더 살펴보자.

> 은하물에 뛰어들어 물장난하다/둥근 달님 마나님께 꾸중을 듣고/산 너머로 쫓겨 가는 아기 별 하나/울며 울며 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저대로 떨어지다 험한 바위에/부딪쳐 피가 나면 어떡하나요./부엉이 부엉부엉 무서운 산 속/길 가는 사람들도 없을 텐데요.//동무야 가자 가자 초롱불 들고/떨어진 아기 별을 찾으러 가자./도랑물 건너 건너 고개를 넘어/집 없는 아기 별을 데리러 가자.//
>
> —「별똥」 전문

위 작품은 「별똥」이라고 불리는 흐르는 별을 두고 지은 것으로, 윤석중 스스로 흐르는 별이 되어 상상의 나래를 펴 본 것이다.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을 별똥별이라고 말한다. 화자는 하늘에서 땅으로 흐르는 별을 보는 순간, 걱정이 앞선다. 저대로 떨어지다 바위에 부딪쳐 피가 나면 어쩌지? 깜깜한 밤이라 사람들도 없고 무서울 텐데……. 급기야 화자는 떨어진 아기별을 찾으러 나선다. 순수하고 착한 동심의 세계를 발견할 수 있는 작품이다.

작가는 환상 속에서 별똥별이 된다. 현실에서는 그냥 하늘에서 흐르는

13) 윤석중, 『윤석중전집 17』, 웅진, 1988, 29쪽.

03□□□_01□□□ 12. 7. 19. □□ 7:18 Page 71

별에 그치지만, 환상 속에서는 떨어진 별똥별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상상의 나래가 펼쳐진다. 사람들도 없는 무서운 산 속에 떨어졌지만, 분명 누군가가 아기별을 도와줄 것이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이 또한 작가가 만들어낸 낙천적 환상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3. 의인화(=물활론)적 환상

아동문학에서 의인화는 유아의 물활론적 사고와 관련된다. 유아는 자기중심성이 강하다. 그들은 모든 세계가 자기와 감정, 욕망을 공유한다고 생각한다. 삐아제는 아동의 사고는 성인의 사고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해왔는데 물활론적 사고는 전조작기 아동의 전형적인 특성이다.[14] 앞서 말했듯이, 신현득은 물활론을 언급하면서 오히려 동화보다 동시에 환상적 요소가 많이 나타난다 하였다.

> "아동문학은 아동심리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심리는 물활론적이며, 보통보다 별난 세계를 좋아합니다. 이래서 아동문학에는 판타지가 적용되고 판타지의 극치가 동화보다는 동시라 생각합니다."[15]

어린이들은 의인화된 세계에서 모든 대상물을 친구로 받아들인다. 이때 대상물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동시 속의 세계 즉, 불가능한 것이 없는 세계에서 동심의 상상력을 맘껏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중은 평범한 자연 대상물을 기발하게 포착하여 의인화 한다. 이는 현실 속에서 한숨보다는 웃음을 주고자 한 그의 낙천성이 반영된 세계이다.[16]

---

14) 김경희, 『아동심리학』, 박영사, 1989, 191쪽.
15) 신현득 작가와 새싹문학사의 인터뷰에서 확인되었다.(2011)
16) 나정미, 「윤석중 동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5.

03□□□_01□□□ 12. 7. 19. □□ 7:18 Page 72

이슬비 내리는/이른 아침에/우산 셋이 나란히/걸어갑니다.//파랑 우산/깜장 우산/찢어진 우산.//좁다란 학교 길에/우산 세 개가/이마를 마주 대고/ 걸어갑니다.//

—「우산」 전문

「우산」은 1932년도에 지어져 반세기가 넘게 어린이들의 입을 통해 불려왔다.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번쯤 들어보고 불러봤을 만큼 널리 알려진 이 동요도 우산을 사람에 빗댄 의인화적 환상성이 드러난다. 비오는 날,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면 큰 우산에 가려져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의인화적 환상도 순수한 동심에서 출발한다고 볼 때, 동심어린 화자의 눈에 우산이 사람처럼 참방참방 걷고 있다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

그의 낙천성과는 조금 동떨어진 '찢어진 우산'은 가난한 시대적 상황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밝고 경쾌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이들이 이마를 맞대고 걸어가는 평범한 학교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산을 쓰느라 손을 잡고 걷지는 못하지만, 친구들과 재잘재잘 이야기하다보면 자꾸만 서로 부딪히는 우산을 재치 있게 의인화하고 있다. 아이들의 밝은 모습은 우리가 끊임없이 지향해야 할 세계임을 말해준다.

책상 위에 오뚝이/우습구나야./검은 눈은 성내어/뒤룩거리고/배는 불룩 내민 꼴/우습구나야.//책상 위에 오뚝이/우습구나야./술이 취해 얼굴이/빨개 가지고/비틀비틀하는 꼴/우습구나야.//책상 위에 오뚝이/우습구나야./주저앉다 아래로/떨어져서도/안 아픈 체하는 꼴/우습구나야.//

—「오뚝이」 전문

윤석중은 1925년 『어린이』지에 「오뚝이」가 입선됨으로써 문단활동을 시작했다. 윤석중이 위 작품을 발표하던 20년대만 해도 우리 동요의 패

03□□□_01□□□ 12. 7. 19. □□ 7:18 Page 73

턴은 애상적 어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었다. 그러나 윤석중은 초기 작품에서부터 그런 처량하고 애상적인 모습과는 다른 작품을 쓰고 있다.[17] 그 중 「오뚝이」는 배가 불룩한 채 움직이는, 시적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 특성을 경쾌한 리듬 속에서 의인화시키고 극화시켜 생동감 있게 표현한다. 이렇듯 대상의 개성적 특성이 감각적으로 형상화되는 이 동요[18]에서도 당대의 슬픈 동요와는 구분되는 물활론적 환상의 요소가 잘 드러난다. 아이들이 갖고 노는 오뚝이의 특성을 사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오뚝이의 가장 큰 특징은 배가 공처럼 동그랗게 나왔다는 점이다. 오뚝이는 다리도 없이 둥근 배로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뒤뚱거린다. 얼굴에 볼터치까지 하고 있는 오뚝이라면, 비틀비틀하는 꼴이 술에 취해 얼굴이 빨개진 사람과 흡사하다. 오뚝이는 혹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동그란 배로 중심을 잡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비틀거린다. 윤석중은 "열네 살짜리가 지은 동요치고는 지나치게 빈정거린 노래였다. 그러나 어린 눈에 비친 어른들의 세계는 오뚝이나 다름없었다. 어른들의 거드름, 술기운을 빌린 으스댐, 떨어져서도 안 아픈 체 하는 꼴은 우습기 짝이 없었다."[19] 고 말한다. 어른들은 항상 '책상 위의 오뚝이'처럼 위에서 아이들을 내려다보려한다. 아이들과 같은 시선에서 생각하고 이해해주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다. 실제 어른들이 잘못했어도 아이들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모양새를 '안 아픈 체 하는 꼴'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재미있다. 이렇듯 재미있는 '의인화적 상상'이 가능했던 것은 윤석중이 낙천성을 잃지 않고 우스운 노래, 즐거운 노래를 지으려고 애썼기 때문이다. 그의 독특한 의인화적 발상이 드러나 있는 작품 한 편을 더 살펴보자.

---

17) 김제곤, 「아기 노래의 시인, 윤석중」, 『새싹문학』, 2011, 26쪽.
18) 박지영, 「1930년대 동시작단의 장르적 모색과 그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2007.
19) 윤석중, 『윤석중 전집 20』, 웅진, 1988, 32쪽.

03□□□_01□□□ 12. 7. 19. □□ 7:18 Page 74

한 장으로 된 새 달력을/벽에 붙여 놓았다, 반듯하게./달력학교는 반이 열둘인데/반마다 일곱 줄로/나란히 앉아 공부한다.//4년마다 한 번씩/ 이월 달에 한 명을 더 뽑지만/달력학교에서는/반을 늘이는 일도/학생을 더 받는 일도 없다.//"얼마나 좋을까……."/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가/벽에 붙은 새 달력을 부러워서 쳐다본다.//

—「달력학교」 전문

1968년도에 발표된 「달력학교」는 다른 작품들에 비해 독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다른 작품들에 비해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달력을 학교로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상이 전개된다. 달력학교에서는 1월부터 12월까지 열두 개의 반이 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지런히 일곱 줄로 나눠진 줄이, 교실에 일렬로 정돈된 책걸상을 연상케 한다. 달력학교에서는 4년마다 한 번씩 이월 달에 한 명을 더 뽑는다. 날짜 하나하나를 학생들로 형상화한 작가의 참신한 발상이 눈에 띤다. 위 작품을 감상하다보면, 정말 달력이 학교와 흡사하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옛날에는 학교가 작고 선생 수도 부족해, 한 반에 아이들 여럿이 빽빽이 들어앉아 공부하였다고 한다. 이 모양새는 '콩나물시루'에 비유되었다. 콩나물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는 반을 늘이는 일도, 학생을 더 받는 일도 없는 달력학교를 부러워 쳐다본다. 이처럼 윤석중이 맑은 동심으로 본 달력은,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가 된다. 종이 한 장에 불과했던 달력에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위 작품에 적용된 물활론적 환상은, '萬物의 생명성'과도 깊은 연관성을 갖는다. 이렇듯 순수한 동심 속에서는 만물이 살아 움직인다.

이밖에 윤석중 작품에는 사물들의 대화를 적용한 의인화적 환상을 취한 작품도 볼 수 있다. 「지팡이와 목침」, 「못과 팽이」가 그것이다. 「지팡이와 목침」에서 지팡이는 만날 편안히 누워있는 목침을 부러워하지만, 심심한 목침은 맘껏 산으로 들로 쏘다니는 지팡이를 부러워한다. 「못과

03□□□_01□□□ 12. 7. 19. □□ 7:18 Page 75

팽이」에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대가리를 장도리로 때린다며 못이 불평한다. 이 말을 듣고 팽이가 '우리는 팽이채로 맞아야만 산다'며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못을 위로한다. 이처럼 윤석중 작품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의인화적 환상이 존재한다.

이오덕은 '의인화는 판타지가 아니다'[20]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지만, 필자는 오히려 의인화가 판타지 형태의 가장 기본으로 이해되어져야 한다고 본다. 단지 모든 사물을 사람처럼 바꿔놓기만 하면 의인화적 환상이다, 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그 나름의 면밀한 계산과 완벽한 규칙을 기본으로, 내면의 논리가 분명하여야 할 것이다.

4. 공간적 환상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동시의 환상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시간과 공간이 환상에 작용하는 힘에는 차이가 있다. 이를테면, 시간은 앞뒤 즉,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수평적 이동인 반면, 공간은 전후좌우의 수평적 이동과 상하의 수직적 이동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21] 윤석중 작품에는 미래를 지향한 시간적 환상성이 드러난 작품도 다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공간적 환상이 적용된 작품을 위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1) 환상적 공간 1－하늘

새 신을 신고/뛰어 보자 팔짝./머리가 하늘까지 닿겠네.//새 신을 신고/달려

20)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107쪽.
21) 김성규,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공간구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4.

03□□□_01□□□ 12. 7. 19. □□ 7:18 Page 76

보자 휙휙./단숨에 높은 산도 넘겠네.//

—「새 신」 전문

날아라 날아라 솔개미야./날아라 날아라 비행기야./사람도 배꼽을 꼭 누르면/날아라 날아라 저 하늘로.//

—「배꼽」 전문

「새 신」은 초등학교 1학년 음악교과서에도 오래도록 실릴 만큼 널리 알려진 동요이다. 사람이 아무리 높게 뛰어봤자 머리가 하늘에 닿는 것은 현실이 아닌 환상 속에서만 가능한 일이다. 새 신을 받아든 아이는 너무 기쁜 나머지, 새 신을 신고 뛰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만 같은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배꼽」에서도 하늘을 날고 싶은 어린이들의 욕구가 잘 드러나 있다. 어렸을 적 '나도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이라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솔개미나 비행기처럼 사람도 배꼽만 꾹 누르면 쉽게 하늘을 날 수 있다니, 얼마나 재미있고 환상적인 일인가. 이처럼 아이들이 꿈꿀 수 있는 환상적 공간인 '하늘'을 소재로 한 동시가 윤석중 작품집에 자주 등장난다.

2) 환상적 공간 2 – 달을 따다

얘들아 나오너라 달 따러 가자./장대 들고 망태 메고 뒷동산으로.//뒷동산에 올라가 무등을 타고/장대로 달을 따서 망태에 담자.//(중략)//얘들아 나오너라 달을 따다가/순이 엄마 방에다가 달아 드리자.//

—「달 따러 가자」 부분

하늘을 오르는 환상은 「새 신」이나 「배꼽」에서 그치지 않는다. 윤석중 작품에는 유독 달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하늘의 달

03□□□_01□□□ 12. 7. 19. □□ 7:18 Page 77

을 따다가 지구에 단다는 내용의 동시가 눈에 띤다. 하늘을 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하늘의 달을 따다가 지구로 가져오는 것이다. 아이들은 뒷동산에 올라 무등을 타고 장대를 올리는 것으로 환상적 공간인 우주에 도달한다. 아무렇지 않게 달을 망태에 담아 돌아온다. 불이 없어 바느질을 못하는 순이 엄마 방에 불보다 환한 달을 달아주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어린이들의 때 묻지 않은 착한 마음까지 엿볼 수 있어 감동이 배가 된다. 위 작품에서 빛을 지향하는 달은 그의 낙천성과도 직결된다. 이러한 낙천성이 자연을 의인화하는 동심과 어우러져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간 것이다. '초승달'을 따다가 지구로 옮겨놓은 다음 작품도 한 번 감상해 보자.

초승달을 따다가/잠그네를 만들어/푸른 그늘에 달아 놓아요./우리 아기를 거기 태우면/혼자서 흔들흔들 잠이 들겠지.//초승달을 따다가/조각배를 만들어/푸른 강물에 띄워 놓아요./우리 아기를 거기 태우면,/혼자서 둥실둥실 잠이 들겠지.//

—「초승달」 전문

위 작품은 두 살 때 어머니를 여읜 윤석중이 엄마 등에 업혀 잠이 드는 아기를 부러워하며 지은 노래이다. 윤석중은 때로는 어머니가 되어 아기를 재우기도 하고, 때로는 어머니 대신 자장가를 지어보기도 했다.[22] 「초승달」의 시적화자는 어머니이다. 하늘 높이 떠 있는 초승달로 그네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시적화자인 어머니는 상상 속에서나마 초승달로 그네를 만들어 그곳에서라도 아기가 보채지 않고 잘 잔다면, 그렇게 해주고픈 어머니의 사랑을 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23] 초승달을 따다가 잠그네를 만들어 아기를 재우

22) 윤석중, 『윤석중 전집 23』, 웅진, 1988, 59쪽.
23) 김순아, 「윤석중 동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43쪽.

03□□□_01□□□ 12. 7. 19. □□ 7:18 Page 78

기도 하고, 초승달을 따다가 조각배를 만들어 아기를 잠들게도 하는 것이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눈으로 보여 지는 것만이 진실이 아니며 생각하고 느끼는 것도 동시에서는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시인은 시에서 몇 마디의 말, 몇 개의 글자 속에 무한한 우주의 세계를 감동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이다.[24] 위의 동시 또한 환상적 우주의 세계를 동심으로 느낄 수 있게 한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공간적 환상 3 – 지구를 한 바퀴

눈을 뭉쳐 굴려라./모두 나와 굴려라./데굴데굴 굴려라./지구를 한 바퀴 돌아라.//

—「눈 굴리기」 전문

앞으로 앞으로/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온 세상 어린이가 하하하하 웃으면/그 소리 울려가겠네 달나라까지./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문

윤석중의 '지구를 한 바퀴 돌기' 상상은 눈을 뭉쳐 데굴데굴 굴리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눈 굴리기」(1939)에서 멈추지 않고, 이후에 널리 알려진 「앞으로 앞으로」(1969)에서 공간적 환상의 이미지가 심화되어 나타난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날 수 있겠다는 상상으로 발전한 것이다. 여기에 환상적 형상화 요소가 가미되어 온 세상 어린이가 웃는 소리는 달나라까지

24) 이상현, 『아동문학논의』, 일지사, 1991, 35쪽.

03□□□_01□□□ 12. 7. 19. □□ 7:18 Page 79

울려 퍼진다. 환상적인 공간 속에서 어린이들은 온 세상 어린이와 친구가 되는 꿈을 꾼다. 위 작품에 대해서 노경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하는 상상력은 태고적 인간의 이미지이다. 현대과학이 발달한 시대의 어린이는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를 다 만나고 오겠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25]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오직 새로운 것, 문명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리석게 인식된다,'[26]라는 의견에 어린이는 제외라는 생각이다. 현대과학이 발전했다고 해서 어린이들의 동심이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과학발전 이전의 어린이들이 더욱 동심이 짙고, 과학발전 이후의 어린이들이라고 해서 동심(童心)적 상상을 느끼기 힘들다는 것에는 분명 모순점이 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어린이들은 점점 명석(明晳)해진다. 하지만 명석하다고 해서 어린이들 특유의 순수한 동심이, 상상과 환상의 나래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는다. 어린이들은 언제나 기이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꿈꾸고 좋아하기 때문이다.

현실로 가능하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이 작품 속의 숨은 뜻은 국가 간의 이념과 이해 및 적대 관계를 넘어서 세계를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것이 '어린이의 마음'뿐이라는 것이다.[27] 「앞으로 앞으로」의 발상은 순수한 동심만 지니고 있다면, 과학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현대의 어린이들도 충분히 상상 가능한 일이다. 상상에서만 가능한 세계일지라도 아이들에게 환상적 공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미래지향적인 작품이라 볼 수 있다.

---

25) 노경수, 앞의 책, 2009, 221쪽.
26) 위의 책, 241쪽.
27) 이하석, 「한국인의 영원한 어린이 세계」, 『대구매일신문』, 1983.

03□□□_01□□□ 12. 7. 19. □□ 7:18 Page 80

5. 변형인식적 환상

동시에서의 변형인식적 환상은 "시적 자아가 그 객관적 실체인 세계 안의 존재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영하여 그 능력을 활용하려는 방향으로 자기 인식한 경우"를 뜻한다. 어린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현실세계에서는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 그때부터 어린이들은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변형인식이다. 변형인식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에 자기를 투영하여 그 힘과 능력을 스스로 가져가버리는 것이다. 즉, 변형인식은 어린이들이 현실세계와 대결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대응수단이자 적극적인 해결방안이기도 하다.[28] 다음 제시된 두 작품은, 아이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환상에서의 적극적 수단으로 보여진다.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인가요./꼬부랑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치마끈에 달랑달랑 채워줬으면.//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신다 버린 신짝인가요. 우리 아기 아장아장 걸음 배울 때, 한짝 발에 딸각딸각 신겨 줬으면.//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해님이 빗다 버린 면빗인가요./우리 누나 방아 찧고 아픈 팔 쉴 때,/흩은 머리 곱게 곱게 빗겨 줬으면.//

—「낮에 나온 반달」 전문

「낮에 나온 반달」은 일제강점 하에서 우리민족이 느꼈던 상실감을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킨 작품이다. 위 작품에서 반달은 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이 되었다가, 해님이 신다 버린 신짝이 되었다가, 해님이 빗다 버린 면빗이 되기까지 변형에 변형을 거듭한다. 둥근 달을 반으로 싹

28) 박행신, 앞의 책, 2000, 21쪽.

03□□□_01□□□ 12. 7. 19. □□ 7:18 Page 81

둑 잘라놓은 '반달'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연상되는 갖가지 이미지를 작품에 담고 있는 것이다. 낮에 나온 반달이 해님이 쓰다 버린 쪽박, 신짝, 면빗이라면 화자는 그것들을 주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 쪽박은 할머니가 물 길러 갈 때 채워드리고, 신짝은 아기가 걸음마 배울 때 한짝 발에 신겨주고, 면빗으로는 누나의 흩은 머리를 곱게 빗겨줬으면 하는 것이다. 이렇듯 반달이 변형을 거듭하여 만들어낸 환상은, 현실세계에서 아이들의 힘과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환상 속에서나마 적극적으로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도록 이끌어준다..

> 뭉게뭉게 흰 구름은/하늘나라 양이라네.//여름에는 양젖 대신/달디단 비 내려 주고/겨울에는 양털 대신/푸근한 눈 내려 다오.//뭉게뭉게 흰 구름은/하늘나라 양이라네.//
>
> —「흰구름」 전문

본고에서는 윤석중 작품의 외적환상을 제외하고 내적환상의 유형만을 다루었다. 「흰구름」은 사실 외적환상의 유형에 근접할 수 있겠으나, 변형인식적 환상에서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살펴보기로 한다. 위 작품에서는 흰 구름을 양이라고 단정 지어 표현한다. 화자의 눈에는 벌써 하늘의 구름이 양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어린이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욕구를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고,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적극적인 수단을 찾게 된다. 그리하여 '흰 구름이 하늘나라 양이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화자의 소망이, 마음속에서 구름을 양으로 변하게 만든다. 한 여름 가뭄으로 만물이 메말라갈 때, 흰 구름이 양이라면 양젖처럼 달달한 비를 내려줄 것이다. 추운 겨울에도 흰 구름이 양이라면 차가운 눈 대신 양털 같은 푸근한 눈을 내려줄 것이라 믿는 것이다. 이렇듯 환상 속에서 흰 구름을 양으로 변형인식시킴으로써 어린

03□□□_01□□□ 12. 7. 19. □□ 7:18 Page 82

이들은 동심적 상상 속에서 바라는 욕구를 채울 수 있다.

6. 결론

환상은 아이들의 꿈으로 이루어진다.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이 없다면, 또 희망이 없다면 환상의 세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어린이가 가진 꾸밈없는 솔직함은 낙천적인 동심을 표출하고 환상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데 꼭 필요한 모습이다.

문학에서 환상의 세계는 아이들의 욕망을 채워줄 무언가로 나타난다. 앞서 말했듯이 아동문학에서는, 동화 못지않게 동시에서도 현실을 기반으로 한 환상성을 띤 작품들이 많이 드러난다. 이에 본고는 윤석중 동시에 드러난 낙천적 환상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심을 바탕으로 한 동화적 환상, 의인화적 환상, 공간적 환상, 변형인식적 환상이 드러난 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이들이 발휘하는 상상력에 동심을 불어넣으면, 동화적 환상의 세계가 주어진다. 또한 '세계 안의 모든 존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물활론적 사고를 지닌 어린이들에게 의인화적 환상은 별난 세계, 경이로운 세계로써 즐거움을 준다. 특히 윤석중 작품 중에는 '달'을 소재로 한 동시가 많다. 본고에서도 공간적 또는 변형인식 환상의 형상화로 초승달·반달·둥근달이 등장한다. 달의 모양에 맞게 환상적인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 성공한 작품들이라고 보여진다.

윤석중 동시집에 나타난 물활론, 시공간, 변형인식 등 내적환상의 요소는 아이들의 정서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앞서 말했듯, 아이들은 어느 순간 자신의 욕구를 현실세계에서는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욕구를 채울 적극적 수단을 찾기 때문이다. 윤석중 동시 중 환상성이 드러난 작품은 아이들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적극적 수단으로 이해되

03□□□_01□□□ 12. 7. 19. □□ 7:18 Page 83

어져야 한다. 이것은 윤석중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과도 깊은 연관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동시집 등 어린이 도서를 잘 찾지 않는 아이들도 윤석중 작품의 다수가 교과서에 실려 있으므로 학교에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윤석중 작품의 '낙천적 환상성'은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들은 작품에서나마 환상세계를 모험하며 희망을 갖게 된다.

한편, 윤석중은 현실을 외면하였거나 현실에 없는 아동을 그렸다는 혹평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윤석중이 낙천적 동심의 세계, 낙천적 환상의 세계를 옹호한다고 해서 윤석중 작품이 모두 낙천적이고 희망적인 것만은 아니다. 대표적인 예로 윤석중의 작품 「달팽이」[29]를 보면, 이 사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달팽이」에서는 달팽이집이, 피난 갈 때 등에 짊어지는 짐 보따리에 비유되고 있다. 그렇다면 달팽이는 전쟁 중 피난 가는 사람으로 물활론(의인화)적 환상의 요소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어린이에게는 비극적인 시대적 상황을 굳이 알릴 필요 없다는 것이 윤석중의 주장이지만, 윤석중도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을 아예 모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동시 역시 현실적인 모순이나 문제점을 소재나 주제 삼아 '우회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그 현실적 모순이 동시에 어떤 방식으로 표현되었는가의 문제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윤석중은 전쟁풍경을 소재로 한 「달팽이」를 노래하면서도, 동시의 상징성을 일반 활용해, 아이들이 심각한 상황임을 눈치 채지 못하게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윤석중 문학이 현실반영을 않는 터무니없는 낙천적 환상이라고만은 단정 지을 수 없다.

물론 어린이를 위한 작품이 낙천적이고, 즐겁다고 해서 어린이들이 현

29) 「달팽이」 전문은 다음과 같다. 달팽아/달팽아/난리 났니,//잔등에/무거운/짐을 지고//달팽아/달팽아/어디 가니.//충청도/인심이/좋다는데//달팽아/그리로/피난 가니.//

03□□□_01□□□ 12. 7. 19. □□ 7:18 Page 84

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들의 지식수준에 따라 현실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을 굳이 아동문학에서까지 끌어들일 필요는 없다. 어린이들마저 어른처럼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눈물지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만이라도 아이들은 즐거워야 한다. 그리고 힘들 때, 시나 노래로 그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 동시가 일반 시처럼 현실을 파헤쳐 고발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윤석중의 '낙천적 환상성'이 드러난 여러 작품들은 효력을 발휘한다. 아이들이 선호하며 판타지 형태의 가장 기본으로 이해되어져야 하는 '물활론적 환상'에 충실한 작품들이 많고, 아이들의 변치 않는 꿈인 하늘을 나는 공간이 작품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낙천적 환상의 세계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다. 아이들 마음속에 세계가 하나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다.

앞으로도 어린이를 위한 '동시 환상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작뿐만 아니라 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윤석중 동시의 낙천적 환상성 연구에서 '외적 형식'을 다루지 못한 점을 과제로 남기며, 앞으로 동시 환상성 연구에 꾸준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03□□□_01□□□ 12. 7. 19. □□ 7:18 Page 85

참고문헌

기본자료

윤석중, 『윤석중 전집』, 웅진, 1988.

단행본

김경희, 『아동심리학』, 박영사, 1989.

김제곤, 「아기 노래의 시인, 윤석중」, 『새싹문학』, 2011.

노경수, 『윤석중 연구』, 청어람, 2009.

오세영, 『문학연구 방법론』, 시와 시학사, 1993.

유경환, 「기법상의 소재로서」, 『아동문학사상 1』, 보진제, 1970.

윤석중, 『동요 따라 동시 따라』, 창조사, 1971.

이상현, 『아동문학논의』, 일지사, 1991.

이오덕, 『어린이를 지키는 문학』, 백산서당, 1984.

이하석, 「한국인의 영원한 어린이 세계」, 『대구매일신문』, 1983.

한혜선, 『아동문학창작론』, 푸른사상, 2000.

논문

곽홍란, 「이주홍 동시 특성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논문, 1999.

김성규, 「이원수의 동시에 나타난 공간구조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1994.

김순아, 「윤석중 동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2005.

김종헌, 「해방기 윤석중 동시 연구」, 우리말글, 2003.

나정미, 「윤석중 동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논문, 2005.

박지영, 「1930년대 동시작단의 장르적 모색과 그 의미」, 덕성여자대학교, 2007.

박행신, 「동시의 환상성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논문, 2000.

03□□□_01□□□ 12. 7. 19. □□ 7:18 Page 86

Abstract

A Study on Optimistic Fantasy of Yoon, SeokJung's Children's Poem

—Focusing on internal form of a literary work

Shin, Jung A

Fantasy is made by children's dream. There will be no fantasy world, if growing children do not have dream or hope. Children's genuine honesty is really needed for expressing an optimistic childish innocence and presenting a fantasy world.

Fantasy world shows something that gratifies children's desire in literature. As I mentioned earlier, there are not only fairy tale but also many children's poem which assumed a fantasy based on reality in juvenile literature. For this reason, I studied an optimistic fantasy in Yoon, SeokJung's children's poem. I focused on literary work which has fairy tale fantasy based on innocence of childhood, personified fantasy, spatial fantasy and transforming fantasy.

There is given a world of fairy tale fantasy when we instill children's imagination with childish innocence. Furthermore, a personified fantasy gives pleasure with an eccentric and wonderful world to the children who have animistic thoughts such as 'Every existence has life in the world'. Especially, Yoon, SeokJung's used 'Moon' as a material in his children's poem. A crescent moon, a half moon and a full moon also appears in this manuscript as an imagery

03□□□_01□□□ 12. 7. 19. □□ 7:18 Page 87

of spatial and transforming fantasy. It looks successful literary work to realize a fantastic image in moon's shape.

Factors of animistic, space time and transforming also helps children's emotional development which is in Yoon, SeokJung's children's poem. Children suddenly realize that they cannot indulge their desire in real world and they start to find active ways to fill their desire. Yoon, SeokJung's fantasy works have to be understood as an active way to indulge children's desire. This shows a close correlation with Yoon, SeokJung's mind which loves children. Children can have a hope by experiencing fantasy world in these literature works.

On the other hand, Yoon, SeokJung's got harsh reviews about disregarding a reality or drawing an unreality child. However, even if Yoon, SeokJung supports a positive childlike world and an optimistic fantasy world, every Yoon, SeokJung's literature works is not optimistic and hopeful. A typical example, it can be found clearly in Yoon, SeokJung's work, 'Snail,' Yoon, SeokJung also could not avoid reality in that time although he thought children do not have to know this tragic time.

Children's poems also express a realistic contradiction or problems indirectly by making these things materials or themes. However, we need to focus on how realistic contradiction is expressed in children's poem.

In those regards, Yoon, SeokJung's many literature works which includes 'Optimistic Fantasy' proves effectiveness. As there are many literature work which children prefer and focusing on animistic thoughts. It also includes sky which is children's everlasting dream. Children advanced in optimistic fantasy world. It is not far that the world is the one in children's mind.

We need to recognize the need of 'Children's poem fantasy' for

03□□□_01□□□ 12. 7. 19. □□ 7:18 Page 88

children now and forever, and we also need to continue our effort not only creation but also study. I left the task about ‘External Form’ in optimistic fantasy study in Yoon, SeokJng’s Children’s poem and I hope there is a steady result of children’s fantasy study in future.

주제어 : 낙천성(rhathymia), 시적 환상(poetic trance), 상상력(imagination), 물활론(hylozoism)

논문 접수일 2012. 05. 04.
논문 심사일 2012. 05. 25.
게재 확정일 2012. 06. 08.